

홍철기는 한국 최초의 노이즈 음악 그룹 아스트로노이즈 (1997~)의 창립멤버이며, 또한 실험/노이즈/즉흥음악 레이블, 벌룬 앤니들(2000~)의 공동 설립자이자 운영자이다. 2004년부터 자유 즉흥음악 활동에 처음 합류하게 되면서 극도로 시끄러운 노이즈 음악과 자유즉흥과 현재의 비-즉흥에 가까운 음악적 흐름의 극도로 급육주의적 미학 사이에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중간영역에 주로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턴테이블의 전기/전자적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어쿠스틱 턴테이블’을 포함한 전형적이지 않은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음악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중간 상태를 음향적으로 구현해 오고 있다. 홍철기는 지금까지 다수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 최준용, 류한길, 진상태, 오토모 요시히데, 사치코 엠, 조 포스터, 타카히로 카와구치, 제이슨 칸, 테츠지 아키야마, 즈비그뉴 칼콥스키 등의 실험/즉흥음악가들이나 이행준, 김곡/김선(곡사)와 같은 영상작가들과의 협업이 대표적이다. 홍철기는 넷마주, 올리어즈, 기타큐슈비엔날레, 어게인스트와 같은 다수의 국제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한바 있다.

Hong Chulki is a founding member of the first Korean noise music group Astronoise (1997~), and of one of few Korean experimental/noise/improvised music labels, Balloon and Needle (2000~) as well. Since 2004 when he first involved in free musical/improvisational collaborative practice, his main interest in music has been focused on the difficult middle ground between extremely loud noise music and the ascetic aesthetics in free improvisation (or rather, non-improvisation). Although his current main instrument is acoustic turntables (or “turntables without cartridge”), his instrumentation always tends to reflect instability and precariousness of the musical and the physical matter. He has actively collaborated with musicians and artists in noise and improvisation like Choi Joonyong, Lee Hangjun, Ryu Hankil, Jin Sangtae, Otomo Yoshihide, Sachiko M, Joe Foster, Takahiro Kawaguchi, Jason Kahn, Tetuzi Akiyama and Zbigniew Karkowski. He also have been invited to the several international festivals such as Netmage, All Ears, Kita Kyushu Biennale and Against.

내가 악기로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맥락은 음악감상이나 디제이 문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나는 음악을 시작했을 때, 기타를 쳤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녹음/재생기기를 가지고 노이즈 음악과 즉흥음악을 연주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도 CD플레이어와 MD플레이어를 사용했다. 내가 처음 턴테이블을 사용하려고 결심했을 때에는 고체의 진동을 음향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턴테이블이라는 음향을 발생시키는 사물에 대한 탐구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플레터의 회전운동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을 만들거나 톤암의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명을 일으키는 물체들을 플레터에 마찰시켜서 턴테이블을 어쿠스틱 노이즈 기계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영상작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나는 반대 방향으로 관심을 발전시켰는데, 그러한 협업에서는 손상되었거나 미리 조작을 가한 레코드를 사용하는 보다 전형적인 실험 턴테이블리즘의 방향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My instrumentation of turntables was neither in the context of music listening nor of DJ culture. I started to play music with guitar and it was prepared CD rather than turntables that I chose immediately in order to play noise/improvised music with everyday recording/playback devices. My starting point with turntables was only inspired by the interest in solid vibration. And then my exploration of turntable went mainly either to the direction of with cartridge but without spinning movement of platter (for example, making feedback of various types) or to without cartridge but with platter against any objects that became abrasive and screeching acoustic noise machine.



레나토 시언프리니는 1958년생으로 이태리 로마 출신. 고전과 현대의 프리뮤직 연주자로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클라리넷, 클라비야코드, 목소리, 일렉트로닉스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모든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프리뮤직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솔로나 그룹으로 즉흥연주를 시작했으며 당시 작곡가인 프랑코 에반젤리스트와 누오바 콘소난자라는 그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계속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클라리넷 연구를 니노 루소와 살 제노베세, 그리고 이후에는 스티브 라시등과 함께 하였으며 인종, 연령, 종교를 불문하고 행위예술가, 배우, 무용가, 필름 및 비디오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 연극을 위한 음악 제작과 무성영화와 함께 하는 연주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Gino Robair, Bob Marsh, Enrico Malatesta, Ly Than Tyen, Ken Hyder, Seijiro Murayama, Tristan Honsinger, Mori Shige, Eugene Chadbourne, Caroline Kraabel, Hans Kock, Mike Cooper, Paed Conca, Mazen Kerbaj, John Berndt, Zu, Jack Wright, Michael Zerang, Tim Hodgkinson, Burkhard Beins, Jonas Kocher, Mario Retchern, Fabrizio Spera 등 많은 연주자들과 함께 협연을 하였다.

RENATO CIUNFRINI born in rome 1958, interested in universal sound.(contrabass clarinet, clarinet, clavichord, voice, electronics) Free archaic contemporary musician. He began, still an adolescent, to practice solo and group improvisation investigating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free music. At that time he met composer Franco Evangelisti and group Nuova Consonanza whose influence impressed and encouraged him to keep on researching. He studied clarinet and saxophone with Nino Russo and Sal Genovese. Later with Steve lacy, among the others. He meets musicians and artists of every race, age, religion and share energy with performers, actors, dancers, film and video artists. Creates music for documentaries, movies, theatre. Plays with silent movies.



퍼포먼스 / 상영 performance / screening

서울Seoul 2011. 8.19 - 8.20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Mullae Art Space Box theater

2011. 8. 19
18시30분 이행준_Nebula Rising, The Cracked Share
19시30분 이행준_Film Walk 최준용_bounce befall 홍철기_Levitation/Vibration

2011. 8. 20
19시30분 "After Psycho Shower" (90분), 16mm multi projection performance
필름 이행준, 사운드 최준용, 홍철기

로마Rome/ 베니스Venice 2011.11.29 - 12. 2
INIT / FONDAZIONE BEVILACQUA LA MASA

로마 INIT "After Psycho Shower" (90분), 16mm multi projection performance
필름 이행준, 사운드 최준용, 홍철기, Renato Ciunfrini
베니스 FONDAZIONE BEVILACQUA LA MASA "After Psycho Shower" (90분), 16mm multi projection performance
필름 이행준, 사운드 Renato Ciunfrini

전시 exhibition

2011. 8.11 - 9.19
코너 갤러리Corner Gallery

기획 : 이행준Lee Hangjun, 피에로 팔라Piero Pala 후원 : 서울문화재단

공연예매 / 문의 : balloonneedle.com



complus
events

Balloon
& Needle

확장된 셀룰로이드 연장된 포노그래프

Expanded Celluloid Extended Phonograph

2004년 이행준과 홍철기의 협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확장된 셀룰로이드, 연장된 포노그래프” 는 2008년에 두 사람이 발표한 DVD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영상과 음향 기록/재생 매체의 물질성과 그로부터 촉발되는 확장성, 불확정성 그리고 즉흥성에 대한 공동된 관심에 있었다. 홍철기와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 온 최준용의 합류는 이 프로젝트를 영상과 음향의 더욱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관계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2011년에 예정된 전시, 상영,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플랫폼의 기획은 영상과 음향의 관계를 근본적인 층위에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퍼포먼스의 첫째 날 프로그램(8월 19일)은 이행준의 〈Nebula Rising〉과 〈The Cracked Share〉의 상영으로 시작된다. 이 작품들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로서 필름이 아닌, 그 스스로 이미지를 드러내는 물질적 매체로서의 필름에 대한 관심사가 반영된 것들로 원래 상영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퍼포먼스는 이행준의 〈Film Walk〉로 시작된다. 이 작품은 프로젝터의 몸체가 아닌 작가 자신의 운동/이동을 통해 음향기록매체(그것도 음향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매체)로서의 16mm 필름의 이미지 운동을 되살려낸다. 음악에서 배제되는 소음 자체에서 새로운 음악성을 찾아내는 노이즈 음악의 실천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열등한 소리’ 에 대한 연구에 안착한 최준용의 퍼포먼스 〈bounce,befall〉은 음향의 위계상의 높고 낮음, 아름다움과 추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월함과 열등함의 대비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물의 낙하운동을 시청각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홍철기의 퍼포먼스 〈Levitation/Vibration〉은 공간 전체를 진동시켜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을 만들어 내어 음향의 위계를 다시 한 번 뒤집는다.

둘째 날(8월20일)은 허치콕의 〈싸이코〉에서 여주인공이 살해당하는 샤워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강박적으로 반복시키고 변주시키다가 결국에는 녹이고 태워버리는 필름 퍼포먼스 〈After Psycho Shower〉를 통해 문화적 ‘기억’ 이 되어버린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장면을 시청각적 ‘경험’ 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다. 이 확장 ‘공포’ 영화 퍼포먼스의 사운드트랙은 부지불식간에 스며들어 와서는 관객을 엄습하는 노이즈 음악이다.

역사적으로 노이즈 음악은 공포 영화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

어왔다(혹은 공포영화 사운드트랙은 노이즈 음악의 전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공포 영화는 언제나 극히 인공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이기도 한 음향효과를 필요로 했고, 노이즈 음악은 ‘그 자체로 일어설 수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 속주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기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특수효과와 발달과 함께 공포영화는 더 이상 기괴하고 으스스한 청각적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노이즈 음악도 전자음악의 보편화로 인해 스스로를 연주하기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 운동과 서사구조에 기댈 필요가 없게 되었다. 〈After Psycho Shower〉는 이미지와 음향의 디지털화로 인해 완전히 절단된 공포영화에서의 양자의 관계를 즉흥 영상-음향 퍼포먼스의 불확정적이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일치/불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이 작품은 9월에는 런던의 Vision Sound Music에서, 10월에는 브뤼셀의 보자르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리고 11월에는 로마와 베니스 등지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8월11일 시작하는 코너 갤러리에서의 동명의 전시에서는 영상/음향 매체의 물질성에 대한 이행준과 최준용, 홍철기의 공통의 관심사가 설치작품으로 투영된다.

“Expanded Celluloid, Extended Phonograph” as a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Lee Hangjun and Hong Chulki since 2004 is also the title of the DVD released by them in 2008.

Its starting point was the common interest in the materiality, and its consequent expansiveness, indeterminacy, and the improvisational in the audio-visual recording-playback media. Hong's longtime collaborator in noise, Choi Joonyong's joining up to this collaboration has pushed it further towards the direction of building more unstable and precarious relation between sound and visual.

The programs planned for the year 2011 including exhibition, screening and live performance is focused on our investigation on the fundamental layers of audio-visual relations.

The first day (19 August) of the performance program starts by the screening of Lee Hangjun's works, “Nebula Rising” and “The Cracked Share”, which reflects his interest in film not as an acceptor of image but as a medium with materiality that emanates image from itself. Those works will be screened in unconventional format. After the screening, Lee's “Film Walk”, the first part of the main performance program follows. This piece revitalizes 16mm film as optically recording/playing-back medium of sound by the body not of the projector but of the projectionist's motion/movement. The “bounce.befall”, the second performance by Choi Joonyong, whose investigation in noise arrived at his interest in so-called ‘inferior sound’, reveals the contrasts between high and low, beauty and ugliness, and ultimately superiority and inferiority in sound through the audio-visual experience caused by the things' motion of freefall. Finally, the first day's program will be concluded in Hong Chulki's “Levitation/Vibration” which tries to violate against the hierarchy between highness and lowness in sound by the vibration throughout the whole space.

The second day's programs opens with 16mm multi-projection performance, “After Psycho Shower”, which deconstructs the famous shower-murder scene from Hitchcock's “Psycho”, frame by frame, and concludes in melting and burning of film itself after the obsessive repetition of it, aiming at renewal of the cultural memory of this well-known images into audio-visual ‘experience’. The soundtrack of this expanded ‘horror’ cinema performance consists of noise music, which unconsciously ambushes the audience. Historically, noise music and horror film has retained the close mutual relationship. Or rather, it can be said that horror film soundtrack was the pre-history of noise music.

Horror films had wanted simultaneously artificial and supernatural sound effects and noise music had to remain as a parasite to its host, horror films, until it enabled itself to stand alone.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visual special effects, horror films doesn't need uncanny sound effects any longer an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dissemination of electronic music technology, noise music doesn't need moving images and narratives any longer to present itself to the audience. “After Psycho Shower” is the piece that (dis)unites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image in horror cinema, previously severed by digitalization of the both, in an indeterminate and contingent way of improvised audio-visual performance.

It will be performed in various formats, at London's Vision Sound Music Festival in September, Brussel's Bozar Electronic Music Festival in October and at the other venues in Rome and Venice in November as well.

The exhibition in the same title at The Corner Gallery in Seoul, which opens on 11 August, also reflects these three artists' common interest in audio-visual medium's materiality into the form of installation.

이행준은 영화제 프로그래머, 저널 편집자로 일했으며 독립 기획자, 영상작가로 활동하며 독립적/실험적 미디어 아트의 다양화/맥락화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일회적이고 비규범적인 시네마의 맥락에서 매체의 물질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확장시키는 작품을 만들어 왔으며 주요작으로 The Cracked Share, Metaphysics of Sound, After Psycho Shower 등이 있으며 프랑스 라이트 콘lightcone에서 작품을 배급하고 있다. Netmage(이탈리아), Lacasaencendida(스페인), scratch expanded/Espace Multimedia Gaunter(프랑스), cafeOTO(런던), IID gallery(일본)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퍼포먼스/싱글채널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LIFT(토론토), Nowhere(런던) 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Lee Hangjun is a filmmaker and independent curator. Lee was programmed a monthly artist film & video screening events in Seoul from 2007 to 2009 and curated special screening program for several gallery space around world. Lee has edited the books Carl Brown:Visual Alchemy Ocular Alkahest(2008) and an anthology on issues in Asian experimental media(2009). His recent works are distributed by Lightcone in Paris. He has attended Artist-in-Residence programs such as LIFT in Toronto, Nowhere in London. His film performance & screening works has been presented in various venues around the world include: Netmage10(Italy), Lacasaencendida(spain), Espace Multimédia Gaunter(France), cafe OTO(UK), Scratch Expanded(france) etc.

필름 표면 위의 물리화학적인 가공이나 빛과 입자 사이의 논리를 해체하는 물질성에 기반한 나의 작업 태도는 내게 프로젝션이라는 스크린 위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 갖게 하였다. 암실에서의 즉흥과 우연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로 무한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영상 제작의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교란과 전치를 끊임 없이 반복하여 작품의 구조와 시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작품의 완성이라 부를 수 있는 시점 이후 프로젝션은 결국 스크린을 빛에 노출시키는 필름에 빛을 노광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프로젝션이라는 사건 자체가 암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과 가장 가까워 지는 과정을 깨닫게 되었다.

필름에 기록된 시간성은 공간적 조형성으로, 색채와 빛의 논리는 무질서한 입자들의 브라운 운동으로 변모한다. 다시 이 필름은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위해 짧은 필름 스트립들로 제단되어 관객들과 실제 시간-공간에서 마주한다. 카메라를 위한 제단되어진 필름을 난 카메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상영 이전에 완성되어야 할 편집 과정을 상영 이후 혹은 상영 사건과 결합시킨다. 그렇게해서 내가 다루는 영상언어의 기본 물질인 필름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 혹은 재현 체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시간-공간에서의 시선 혹은 관객성의 문제, 공간의 문제와 여러대의 프로젝트 사이의 관계에서 시작과 끝의 의미/지속의 의미를 언제나 새로운 구체적 경험으로 되새김한다.

My practice is based on the physical/chemical processing of the film surface and the particular materiality registering the dissolution of the well-ordered relationship between light and particle. This has left me a question how to form an altern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jection event on a screen and the real time-space in its exhibition/screening site. I began exploring the structural and temporal issue in my works by using chance and improvisation in the dark room to construct a limitless database for endlessly repeating the disturbance and displacement of the entire process of film(art) making.

The time(duration) captured in the original film is transformed into a spatial formation-the logic of the color and light transformed into the brown movement of chaotic particles. This ‘open’ film is constructed of short film strips before being presented to the audience with multiple projectors in real time-space. Each time I stand in front of the same-yet never same-work within real time-space. Each time I stand in front of the same-yet never the same-work within real time-space, I ask where such a work begins and ends. I explore this question outside the(not-yet matured) system of art installation which doesn't go beyond a pictorial boundary preferring to work inside a system of cinema that from the very beginning was considered as a type of art with no future.

최준용은 국내 최초의 노이즈 프로젝트인 Astronoise를 홍철기와 1997년에 결성하여 소리의 증폭과 물리성에 대한 탐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즉흥음악 공연인 불가사리와 RELAY에 참가하며 홍철기, 류한길, 진상태, Joe Foster, Otomo Yoshihide, Sachiko M, Jason Kahn 등 국내외의 작가들과 협연을 해왔고 솔로로서도 5장의 음반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행준과의 작업을 통해서는 audio-visual 퍼포먼스를 시도하고 있다. Kita-Kyushu Biennale, All Ears Festival, Pauze Festival 등 일본 및 유럽에서의 공연에 참가하였고, 2000년부터 Balloon & Needle이라는 레이블에서 음반 디자인과 제작을 맡으며 국내의 실험적인 음악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다. 2011년 1월 런던에서는 ‘Balloon & Needle: The New Korean Avant Garde’이라는 행사를 레이블의 작가들과 함께 3일 동안 개최하였다.

Choi Joonyong lives in Seoul, South Korea. He founded Astronoise with Hong Chulki in 1997 which is the first noise project in Korea focusing on amplification and physical aspect of sound, and has been playing noise/experimental music participating in Bulgasari and Relay(the concert series for improvised music in Seoul) since 2003. He is involved in collaborations with other artists such as Hong Chulki, Ryu Hankil, Jin Sangtae, Joe Foster, Otomo Yoshihide, Sachiko M, Jason Kahn and released many albums including five solo albums. He also does audio-visual performance with Lee Hangjun. He played at festivals like Kita-Kyushu Biennale, All Ears Festival, Pauze Festival in Japan and Europe. He runs a label called ‘Balloon & Needle’ releasing experimental music from Korea and does the cover design for most of the releases. With artists from the label a 3-day event called ‘Balloon & Needle: The New Korean Avant Garde’ was held in London in January 2011.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C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오픈 릴 테이프 레코더, 스피커 등의 오류를 이용해 작동 메커니즘으로부터의 근원적인 소리를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CD라는 매체와 CD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측면을 활용한 연주를 담은 음반을 발표하였다. 또한 즉흥이나 작곡의 방법으로 얻게 되는 연주의 통제와 실패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주위 환경과 청취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Instead of building a sound, he usually finds sounds with playback devices such as CD-player, reel tape player, MP3-player, and loud-speaker by utilizing the fallacy to expose their innate sounds from the mechanism. Especially he made several albums with CD and CD-player using their both digital and analog aspects. He is interested in control and failure of playing through improvisation and composition. Recently he is working on solo performances questioning the perception of sound which changes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act of listening.

